



리그를 지배하는 투수들이 대부분 외국인이라면 타격에선 토종의 힘이 강력하다. KT 강백호와 키움 이정후는 타격 1, 2위를 나눠가졌으며 NC 나성범과 SSG 최정(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은 홈런 순위를 지키고 있다. 스포츠동아DB

강백호, 4할타율 재진입 할지 관심

▶마운드는 외인천하. 방망이는 토종강제 1면에서 이어집니다

특히 잠실 라이벌 LG와 두산이 올 시즌 기대를 걸고 영입한 수아레즈와 로켓의 공은 아직 KBO리그 타자들이 쉽사리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위력을 증명하는 탈삼진 순위도 비슷하다. 9이닝당 탈삼진 순위에는 수아레즈(9.99개)와 댄 스트레일리(롯데 자이언츠·9.67개), 카펜터(9.45개)가 차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수아레즈와 카펜터가 리그 최강의 좌완투수 역할을 해내고 있으니 LG와 한화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

줄곧 ERA 1위를 지켰던 원태인(삼성)은 가장 최근의 등판이었던 19일 대구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5.2이닝 7실점으로 고전하는 바람에 수치가 확 나빠졌다. 물론 그의 ERA 2.13은 여전히 토종 1위(전제 6위)다. 박종훈(SSG 랜더스·2.72)과 스트레일리(2.74)가 그 뒤를 잇는다.

●타격 순위 지배하는 '베이징 키즈'

반대로 타격 순위는 토종의 특세가 뚜렷하다. 타율 1, 2위는 '베이징 키즈'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강백호(KT·0.394), 이정후(키움·0.364)의 차지다. 강백호는 23일 대전 한화전에서 5타수 무안타 3삼진에 그쳤으나, 그 전까지 리그에서 유일하게 규정타석 4할 타율을 지켜왔다. 이정후도 시즌 초반의 슬럼프를 딛고 맹추격 중이다. 그 뒤를 양의지(NC 다이노스·0.351)가 잇는다. 타율 톱 10에서 외국인타자는 호세 피렐라(삼성·0.347),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두산·0.331)뿐이다.

홈런 순위에서도 토종 선수들의 기세가 좋다. 1, 2위는 애런 알테어(NC·13개)와 피렐라(12개)가 나눠 갖고 있지만 그 뒤로는 최정(SSG·11개), 나성범(NC·10개) 등 토종 선수들이다. 타율과 홈런 모두 최상단에 포함된 피렐라의 활약은 삼성의 초반 질주에 가장 큰 원동력으로 꼽힌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채널A '강철부대'로 뜨고 예능스타로 우뚝 선 박군의 각오

“2년만에 팬들 사랑…초심 놓지 않겠다”



트로트 가수 박군(박준우)이 채널A '강철부대'부터 SBS '미운 우리 새끼'까지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높이고 있다. 사진제공 | 토발넷

군 복무 시절이던 21살에 홀어머니는 떠나갔다. 6년여 세월, 암과 싸운 뒤였다. 어머니가 투병하는 동안 아직 10대였던 그는 중국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 살림을 거들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곁을 떠나버렸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움은 크지만 씩씩하게 견뎌내며 이제 30대 중반의 어엿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강철부대’ 성실함으로 인기몰이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1위 석권
솔직함과 패기로 ‘미우새’ 안착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가’ 진행도
“서툰점 많은 초보…더 노력할것”



트로트 가수 박군이 본명 박준우로 출연 중인 채널A '강철부대'의 한 장면. 사진제공 | 채널A

‘박군’ 박준우(35).

최근 그가 자신의 고단했던 삶의 한 자락을 털어놓으며 안방극장 시청자에게 감동을 안겼다. 다양한 무대를 통해 드러낸 인간적 매력으로 시청자들과 통했다. 실제로 그는 현재 출연 중인 채널A 대표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를 통해 화제성 분석 회사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발표한 ‘비드라마 출연자’ 순위(5월 2주차)에서 1위를 차지했다.

●새로운 예능 스타의 탄생

박군은 생업을 위해 15년간 육군 특수전 사령부(특전사)에 몸담았다. 제대후 뒤 “노래를 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가수에 도전했다. 지난해 SBS 트로트 오디션프로그램 ‘트롯신이 떴다’-라스트 찬스에서 마침내 빛을 봤다. 비록 준결승전에서 탈락했지만,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인생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몰이를 하며 다양한 무대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명인 박준우로 출연 중인 ‘강철부대’는 물론 예명인 ‘박군’으로도 ‘비드라마 출연자’ 순위 7위에 오른 그는 SBS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자신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10대 때 아르바이트 일터였던 중국집 사장이 “동네 토박이인 박군이 자기 일처럼 도와줬다”며 전한 과거 일화도 크게 화제가 됐다. 이제 고정 출연자로 합류해 방송인 이상민·슈퍼주니어 김희철 등과 함께 하는 일상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있다.

새로운 ‘예능 스타’가 그렇게 탄생했다.

●솔선수범의 인간적 매력

특전사 경력을 살려 출연하고 있는

‘강철부대’에서도 맹활약 중이다. 제 707특수임무단,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 6개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팀별로 경쟁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강철부대’에서 그는 특전사 팀장을 맡아 솔선수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오랜 군 생활로 얻은 노하우를 후배 멤버들과 공유하며 팀을 연습으로 이끈 주역이다. 까다로운 미션마다 “내가 먼저 하겠다”며 나서면서 정태균·박도현·김현동 등 동료들은 “박준우 상사님만 따르겠다”며 “무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 ‘전략분석팀’ 김성주·장동민 등은 “트로트 가수의 친근한 이미지 대신 특전사 상사로서 자라가의 면모까지 발휘하면서 반전을 선사하는 주인공”이라며 일찌감치 그의 인기를 예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활약과 매력에 힘입어 박군은 이제 진행자로서도 새롭게 무대를 누비고 있다. SBS필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가’의 진행자로 최근 발탁돼 연기자 박은혜, 방송인 한영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현재 기획 중인 2~3편의 예능프로그램 진행자 자리도 논의 중이다.

‘대세’로 우뚝 섰지만, 박군은 결코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최근 스포츠동아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대중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며 “연예계에 들어선 지 2년 남짓한 ‘초보’여서 다소 서툰 점이 있었지만, 시청자들이 매사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예쁘게 봐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자혜 기자 yjh0304@donga.com

심혈관질환 환자 중 돌연사가 80~90%를 차지!

연평균 3만여 명이 겪는 심정지! 돌연사 막는 생명팔찌가 있다?



자석으로 되어 있어
위급 시 쉽게 개봉 가능!
(100% 완벽 방수)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발병 후 4분 내의 24시간 지니고 있어야 응급상황에 사용 가능해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전이 쌓여 발생하는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질병 사망원인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질병으로 발병율이 년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3만여 명이 겪고 있지만 생존율은 고작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부터 심정지까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4분이 채 되지않고 이 시간이 지나면 뇌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4분을 넘기면 목숨을 건져도 뇌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오기 어렵다. 따라서 병원에서 심혈관질환 환자들의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하고 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보관하는 곳은 자석의 형태로 되어있어 위급시 손쉽게 열 수 있다. 또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어 샤워나 목욕시에도 차고 생활할 수 있다. 혈관질환 환자중 돌연사가 80~90%를 차지하므로 전조증상이 올 때 빠르게 꺼내어 사용이 가능한 예노라이프 팔찌는 골든타임 내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명품브랜드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 장식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예노라이프 팔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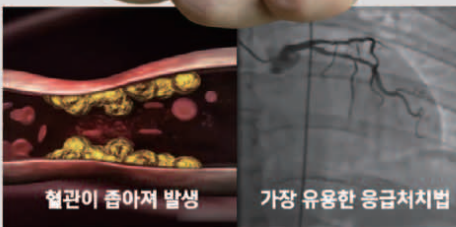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생명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건강정보)

생명을 살리는 니트로글리세린이 뭐길래?

니트로글리세린은 노벨이 발명한 화약의 소재로 섭취 시 순간적으로 일산화질소로 변환되어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혈관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당시 다이내마이트 공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이 맛이 달달한 니트로글리세린을 수시로 먹곤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를 먹으면 협심증 환자들에게서 발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연구가 시작되었다. 니트로글리세린의 미스터리가 밝혀지자 심혈관질환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등의 서구인들은 환호했다. 또한 수많은 제

약화사들이 심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시키는 신약 개발에 나섰다. 당시 미국심장협회는 일산화질소에 대한 발견을 심혈관계 의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평가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허 밑에서 녹여서 점막으로 흡수 후 전신으로 신속히 작용하도록 설계된 설하제이다. 심혈관질환 등의 급성 증상 발생 시 구급차 도착 전에 스스로 사용함으로써 혈관을 순간적으로 확장시켜 위급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문제는 제품이 3mm로 작아 보관이 까다로운 것이 단점으로 알려져 있다.



“
팔찌하나 찼을 뿐인데
든든해서 좋구나!
”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예노라이프 팔찌는 꼭 필요한 소비품이며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상담 및 구매문의 1670-5465